

4/9/23

설교 제목: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에베소서 2 장 11-22 절

(엡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절관주** 골 1:22, 엡 2:14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관주** 롬 8:26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 드립니다.

본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3차 전도 여행 중 약 3년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에베소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어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했고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에는 숙소와, 여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모형 물품 등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방문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 왔습니다.

그후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와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우상과 음란이 가득하던 도시가 변화하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후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에게 할례, 음식법, 절기 준수 등등 유대적 규례를 지킬 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로 인해 교인들은 하나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의 첫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참 교리와 거룩한 삶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 노예들과 자유인들 등 각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구성된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Therefore, remember)'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자 사도 바울은 도대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고, 누구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지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신들이 취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소망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인지를 기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엡 2: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엡 2: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향해 본문 바로 전 1-10 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엡 2: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멀리 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현재의 지위가 이와같이 반전된 것에 대한 좌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엡 2: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엡 2: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엡 2: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이방인의 뜰 사이를 분리하는 성전 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으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심으로 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율법의 짐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갈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 3: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신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 화평케 하는 새 창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새 창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새로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례 받은 이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 3: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신 십자가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신 십자가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과거의 소외된 이방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한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이 되었습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멀리 있던 이방인들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안으로 볼 때는 모두 산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셋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생은 금생으로 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생은 영원합니다.

(시 49: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시 49: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시 49: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길어야 100 년 사는 금생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각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서로 연결되어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갑니다.

(엡 2: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엡 2: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엡 2: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에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온 우리 모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같이 성령님 안에서 각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요 기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이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멀리 있어 소망이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소망이 있게 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지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